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KIA 안치홍 애리조나서 맹훈

장타력 키운다

체력 업그레이드 훈련 집중

지난해 고대 교육대학원서 남몰래 최고위과정 이수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2012시즌을 만들겠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안치홍에게 2011년은 영광의 해였다.

어깨 수술 여파로 전반기가 불투명했지만 안치홍은 힘든 재활과정을 딛고 개막과 함께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크고 작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지만 2루 자리를 굳게 지키며 생해 첫 3할 고지를 밟았고 골든글러브까지 품에 안았다. 하지만 안치홍에게 2011년 겨울은 영광의 순간이자 아쉬움의 순간이기도 했다.

안치홍은 "골든 글러브를 받았지만 운이 좋았다. 한국 최고의 2루수인 정근우 선배가 부상으로 없었다. 상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다"며 "괜찮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왔다. 다음에는 더 당당하게 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넘어야 하는 산' 정근우와의 진검 승부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2루수로 서고 싶다는 것이 안치홍의 2012시즌 바람이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올 시즌을 기약하며 강훈을 이어가고 있지만 캠프 출발 직전까지 '연봉협상'을 놓고 마음 고생도 했었다.

안치홍은 캠프 출국 전날에서야 1억2500만원에 연봉 재계약을 끝냈다.

2011시즌 4000만원 인상된 1억원에 도장을 찍으며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던 안치홍의 올 시즌 인상액은 2500만원. 부상투혼으로 3할 고지를 밟으며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안치홍은 "그동안 인상폭도 있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사실 생각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계약이 늦어졌다"며 "3할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팀의 주전 선수로서 자존심도 생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자존심'을 내걸었지만 안치홍은 결국 구단이 처음 제시했던 안에 계약을 끝냈다. 아쉬움이 남지만 2012시즌 알짜배기 활약으로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다.

안치홍의 올 시즌 전략은 '조용한 변화'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큰 변화보다는 체력·신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부상 없이 체력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자연히 장타도 늘고 기동력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치홍의 생각이다.

그라운드 밖에서의 발전도 꿈꾸고 있다. 안치홍은 지난 12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이었지만 남몰래 '학생' 안치홍으로 변신해 많은 걸 배웠다.

안치홍은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 야구를 하느라 공부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는데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강사분이 점심은 늘 다른 사람과 먹으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한정된 세상에서만 산 것 같다. 성격도 그렇고 운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텍사스 레인져스 볼파크에서 전지훈련 중인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다.

"어이쿠" 24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벌어진 2012년 설날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 이슬기(왼쪽)가 150kg이 넘는 장성복을 넘어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슬기 백두장사 '꽃가마'

설날씨름, 장성복에 두 판 뒤지다 내리 세 판 따내

이슬기(현대삼호중공업)가 2012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봉에 다시 올라 최강자의 자리를 확인했다.

이슬기는 24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백두장사(160kg 이하) 결정전(5전3승제)에서 두 판을 뒤지다 내리 세 판을 따내 장성복(동작구청)에게 3-2,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 11월 천하장사대회에서 우승, 최강자에 올랐던 이슬기는 12월에 열린 올스타 장사대회 8강 탈락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설날장사 백두급 정상에 올랐다.

이슬기는 4강전(3전2승제)에서 대학의 강호 이재혁(영남대)을 힘겹게 꺾었다.

첫째 판은 이재혁이 주의를 받는 바람에 이겼고 둘째 판은 무승부 끝에 체중이 가벼워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슬기는 결승전에서도 올스타 한라·백두 통합장사 장성복에게 두 판을 잇따라 내줘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이슬기는 시원한 들배지기로 남은 세 판을 모두 따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장성복은 4강전(3전2승제)에서 2008년 천하장사대회 우승자 윤정수(현대삼호중공업)에게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지만 이슬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순위 결정전에서는 윤정수가 2품, 이재혁이 3품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남일·설기현 "K리그 감초 되겠다"

인천 유나이티드 입단

설기현 김남일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김남일(35)과 설기현(33)이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남일은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10년 전에는 내가 스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젊은 선수들이 주역"이라며 "젊은 주연 선수들을 빛나게 해주는 감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기현이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기현이가 인천의 중심이 돼서 팀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설기현의 활약을 당부하기도 했다.

설기현은 "K리그와 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이 우승권을 노리는 팀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을 작년보다 더 발전한 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은 2009년 K리그에서 정규리그 5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2010년에는 11위, 2011년에는 13위에 머무르는 등 성적이 부진했다.

특히 작년 정규리그에선 31골을 넣어 16개 구단 중 득점(평균 40.9득점) 순위에서 14위에 그칠 정도로 공격력이 시원치 않았다. 허정무 인천 감독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남일과 설기현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거침없이 11연승

프로배구 V리그, 삼성화재에 3-2 역전

대한항공이 '디펜딩 챔피언' 삼성화재를 꺾고 거침없이 11연승을 달렸다.

대한항공은 24일 인천 도원시립실내체육관에서 계속된 NH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4세트부터 폭발한 네맥 마틴(37점)의 강타를 앞세워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일에 이어 삼성화재에 2연승을 거둔 대한항공은 17승6패, 승점 47점을 올리면서 선두 삼성화재(55점)를 바짝 쫓았다.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은 이날까지 이번 시즌 네 차례 대결에서 모두 풀세트 접전을 벌이며 명승부를 연출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알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임동 사거리 · 일신방직 · 하남 · 임동오거리 · 신안사거리 · 광주여고 · 한국카랜드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집)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닉,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닦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5만원~~ ⇒ 47만원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3만원~~ ⇒ 45만원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5만원~~ ⇒ 45만원
▸트립형 매입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 전차종가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본인네비 매립 =~~17만원~~ ⇒ 12만원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35만원~~ ⇒ 30만원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22만원~~ ⇒ 19만원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37만원~~ ⇒ 33만원
샤크안테타 및 통합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참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1 7만원
▲ EZ5500 25만원
▲ EZ620 10~14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T 17만원